

윤희의 고통에 대한 명상

선업의 과보가 끝나면 다시 삼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윤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윤회세계에서 해탈해야 한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중사의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그 방법은 4성제와 12인연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과 같다. 동물들이 끈에 묶여 있다가 풀리면 자유로워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까르마와 미혹의 끈에 묶여있다가 풀리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묶여 있나 하면 인과와 번뇌의 끈에 의하여 4가지 탄생(승생, 화생, 난생, 태생)으로 육도에 윤회한다. 이 묶임에서 풀려 윤회를 멈추면 바로 해탈인 것이다.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그 고통을 알고 명상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몸이 모태안에 처음 생길때 지옥의 고통을 겪는 쇠살에 담겨지는 듯한 고통이 있다. 어둡고, 더럽고, 나쁜 냄새가 나는 곳에서 9개월 10일 정도 있으면 다섯가지 외사(단식, 이식, 설식, 신식, 비식)가 생기고 모태속이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 모태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소의 생가죽을 벗기는 고통과 고안이가 귀구멍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어린 이들은 태어나는 고통을 지냈기 때문에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고통들을 다시 받게 된다.

다음에 늙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육근이 다 시들고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때 수행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늙음의 고통을 명상하자. 죽음의 고통, 지기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고통들이 윤회의 세계에는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자세히 모르면, 고통들이 자신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윤회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천상에서 지옥까지 윤회의 세계는 달걀진 식료 만든 6층집 같다.

육도윤회의 원인은 '번뇌'

윤회세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는 4성제(苦集滅道)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설하실때 5비구에게 인과법칙에 의하여 오세부터 말씀하신 것은 고통에 대하여 알게되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윤회의 고통을 아는 6가지 방법: 윤회세계 전체의 고통을 알기위한 방법에는 6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는 천지나 원수 등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처럼 믿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없다. 천지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원수가 천지로 될 수도 있다. 윤회의 세계는 믿을 수가 없다. 윤회세계의 행복은 소급을 마시면 마실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그만됐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많은 돈이 있더라도 거지와 같다. 만족할 마음이 없는 것도 윤회세계의 고통이다. 윤회의 세계에서 돈이 자주 바뀐다. 천생에 왕으로 태어나 많은 신하와 재산을 가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윤회의 세계는 자주 태어나는 고통을 갖고 있다. 또 지위가 자주 바뀌고 친구가 없다. 우리는 태어날때도 혼자이고 병에 걸려도 혼자서 고통을 겪으며 결국 죽을 때도 자기 혼자 죽게 되므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윤회세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윤회를 멈추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기의 윤회를 멈출 수 있으면 고통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다.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면 바로 윤회의 원인을 없애야만 한다.

인간의 고통: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지만 의미없는 일을 하게 되면 고통뿐이다. 우리가 죽게되면 영혼은 바르도라는 곳에서 49일 동안 머물게 되며 1주일 단위로 다른 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게 된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남자가 sex하는 것을 아주 좋은 곳으로 생각하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진 뒤에 가게 된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것이 자신의 몸이 된다.

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되어 윤회세계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통의 뿌리들을 윤회세계의 결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수라·천상의 고통: 아수라로 태어나도 고통밖에 없다. 천상에 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들은 죽기 일주일 전부터 매우 고통스럽다. 그 일주일은 인간의 시간으로 365년이나 된다.

신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만큼 공격도 많이 사용한 것이 된다. 지금 우리는 복덕을 예금하는 시간이며 복덕의 열대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들은 거의 삼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신들은 죽을때 삼악도

윤회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 원인을 없애야만 하며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 한다. 보리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동정심이 있어야 하며, 동정심이 생기려면 증생들을 자기 어머니같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차려져 있어야 한다.

윤회세계의 고통들을 명상하므로써 초발심이 생기고, 다른 이를 위해 명상하게 되면 동정심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생긴 후에 수행을 하면 다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 초발심, 보리심, 정견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명상이나 진언 등을 열심히 한다면 깨달음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해어지기가 매우 힘들고 탐과 애와 욕기미에 의하여 윤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이다. 화가날 때는 불이 난 것처럼 공격들은 다 태버린다. 화를 내는 것은 번뇌중에서 공격들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며, 삼악도라는 버림에서 자기를 떨어버리는 가장 힘센 원수인 것이다. 화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인욕에 대하여 명상해야 한다.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다. 자만을 없애기 위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

치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성제

모든 번뇌 '아상'에서... '무아의 지혜' 해독제 4성제·12인연 알아야 깨달음 얻을수 있어

번뇌, 어떻게 생기는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윤회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윤회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집착을 없애야 하는데 그 집착에는 업의 집착과 번뇌의 집착이 있다. 우리의 몸은 업으로만 태어날 수 없다. 지나간 생에 지은 업과 번뇌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또 번뇌에 끌리게 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풀이 없는 씨처럼 업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 번뇌가 있으면 전에 지은 업이 없더라도 그 번뇌로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윤회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뿌리는 바로 번뇌다. 번뇌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6가지 근본 번뇌: 번뇌에는 근본번뇌 6가지(탐·진·만·치·의·악견)와 그 근본번뇌에 의한 20가지의 수번뇌가 있다.

탐 번뇌는 한 대상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탐의 마음으로 탐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와 인과, 삼보 등 그 자체를 모르고 여러식게 되는 것을 치라고 하며, 또 이 치라는 것은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도 같은 것이다.

의는 사성제와 인과, 삼보 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삼보와 사성제를 의심하면 깨달음에 방해가 되고 인과를 의심하면 삼선취에 태어나기 힘들다.

악견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무성한 자신의 몸을 보고 '나' '나의'라고 생각하는 살가아견, '나'라는 것이 있다는 번집견, '나'라는 몸을 보고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견견, 나쁜 금제(禁制)를 바쁜 것으로 생각하는 계금취견, 사성제, 삼보, 인과 등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견 등이다.

번뇌가 무엇인지 알지: 모든 번뇌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살가아견에서 나온다. 고통, 업, 번뇌, 이 모두의 뿌리는 살가아견과 무지의 두가지다.

모든 번뇌의 뿌리와 같은 무지와 살가아견에 의하여 탐·진·의가 생기고 이것이

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러므로 잠시동안 신의 몸을 얻은 것은 지옥의 달걀진 쇠살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천상에서 지옥까지 윤회세계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달구어진 쇠살 만든 6층집(육도윤회)에 사는 것 같이 고통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 오래 걸어서 파곤할때 앉으면 걸을 때의 큰 고통은 멈추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앉는 그 순간부터 앉아있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그 고통을 알게 되는데 또 알게 되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또 일어나면 앉아있는 고통은 멈추지만 일어나있는 고통이 시작된다. 어다를 의지하더라도 고통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의 우리의 몸은 고통을 받는 자루이며, 다음 생의 고통의 씨앗이다.

윤회세계의 행복과 힘과 재산 등은 다 거짓일 뿐이며,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 고통뿐인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재질: 청동 100% ·종류: 브론즈코팅형, 공동동형, 계금형
·높이: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 737-8881

- | | | |
|----------------|----------------|------------------|
| 관음순 720-1147-8 | 진영사 734-3116 | 광명사 732-4792 |
| 삼보원 732-9904 | 성불사 735-3545 | 죽아원 739-0957 |
| 삼복사 733-0903-4 | 신앙불교사 735-6719 | 불교서적사 732-8086-7 |
| 건지불교사 739-3032 | 종합불교사 733-6655 | 이화불교사 720-1700 |
| 불사원 720-5678 | | |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펴냄스님 번역

④

